

‘안전광산 프로젝트’ 사례집 발간

광주 광산구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추진한 ‘안전광산 프로젝트’ 135일간의 기록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했던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사례집 ‘안전광산 프로젝트 135일간의 기록’을 발간했다.

지난해 7월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취임 첫 결재로 ‘시민참여형 광산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시민 안전’을 민선 7기 광산구청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 삶을 안전의 반석 위에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당시 국가 차원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시설물 등 대규모 인프라의 기능적 부문에 대한 점검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이 체감하기 힘들었다.

광산안전대진단은 국가안전대진단의 틀을 보완하고 안전 수요자인 시민이 주도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소와 안

전 취약시설, 사각지대를 점검·해소하고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준비됐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시민 332명은 21개 동에서 각각 시민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활동하는 등 참여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해 8~12월 135일 동안 총 2천460건의 안전신고를 접수받아 72.8%인 1천792건을 처리했다.

광산구가 발간한 사례집에는 이 같은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고 안전 민원 유형 분석과 활동사항, 안전 개선 사례공유와

향후 대응 방안도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집은 ▲숫자로 보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안전개선 사례, 시민안전점검단 활동 ▲협업사례, 안전정책 ▲생활안전사고 예방대책, 안전 피드백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산구는 사례집에 시민 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소를 신속히 처리하는 현장성 강화 경험을 내실 있게 담아 공직자와 시민이 공유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사례집은 광산구imap 홈페이지(http://imap.gwangsan.go.kr)

전자책방 코너에 공개하고 안전신고와 사고대응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고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광산구에 살면 안전만큼은 안심이라는 믿음이 시민에게 생길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안전망을 정착시키고 안전지방정부 모델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주형탁기자



광산구 첨단2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첨단LC타워 앞 만남의 광장에 소원나무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매달 수 있도록 했다. /광산구 제공

“새해 소원도, 인사도 함께 나눠요”

첨단2동 주민자치회, 소원나무·포토존 설치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자치회(회장 김도훈)가 지난 14일 첨단LC타워 앞 만남의 광장에 소원나무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주민 누구나 새해 바람과 희망을 적어 매달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모은다. 더 많은 주민과 함께 새해를 맞고 서

로 신년인사를 건넨다는 취지로 마련된 소원나무는 정월 대보름 전까지 한 달간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을 맞는다.

주민이 적어낸 바람들은 이후 쌍암공원에서 열릴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불에 살라질 예정이다.

소원나무와 포토존 조형물은 첨단2동 주민자치회 이철원·정용주 위원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올리브공방과 한국도료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두 위원은 주민 화합과 새해맞이를 위해 힘을 모았다.

첨단2동 주민자치회 김도훈 회장은 “올해 주민자치회의 첫 사업으로 소원나무를 기획했다”며 “주민들이 함께 신년인사를 나누고 소원을 비는 행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주형탁기자

“일·돈·사람이 물리는 도시 선도”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올해 업무계획 보고회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 김영집)는 지난 14일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19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광산구·호남대산학협력단 등과 올해 사업추진 목표와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 기업주치의센터 송태홍 금융주치의가 올해 사업계획을, 김영집

센터장이 주요 사업을 각각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산기업주치의센터 정립’을 올해 가치로 설정한 센터는 ▲실사구시형 전문가 자문 ▲분야별 우수사례 도출 ▲광산특화산업 지원 ▲현장진화형 지원조직 구현을 추진 전략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사업만족도 제고, 지원 실적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업 실효성 강화, 광산구 특화기업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신산업 육성, 현장진화형 지원을 통한 기업만족도 향상 등을 통해 구정방침인 ‘일·사람·돈이 물리는 경제도시’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윤인도 호남대산학협력단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광산=주형탁기자

광산구의회, 각계 의견수렴 ‘주민 간담회’

첨단 1·2동 북구 편입안 반대 등 지역 여론 청취

광주 광산구의회는 최근 새해를 맞아 각계 각층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

간담회에는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 광산발전단체장협의회(회장 선병희), 첨단 1·2동 북구 편입거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미자·전창원), 송정 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광란 시의원(민주·광산4)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는 쟁점이 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산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과 소통의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 첨단 1·2동 북구 편입 안 반대와 황룡강 장륙습



광산구, 제5기 주민리포터단 모집

내달 11일까지 접수...20명 선정

광주 광산구가 ‘제5기 주민리포터단’을 모집한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14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제5기 주민리포터단의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글·사진, 칼럼, 포토스토리, 시나리오, 카툰 등 자유롭게 콘텐츠를 작성해 광산구 서브포털 ‘투게더광산톡(news.gwangsan.go.kr)’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는다. 우수 콘텐츠는 월간 광산구 소식지인 ‘광산구보’에도 실리게 된

다. 주민 리포터는 광산구의 주요 정책, 행사, 축제, 마을이야기, 기관 소식, 명소 소개 등 광산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재로 다룰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구정 뉴스 영상 리포터로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구민, 광산구에 관심 있는 타 지역민 등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연령 제한은 없다. 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s_press@daum.net)로 보내면 된다.

광산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20명을 선정하고 3월 중 상견례를 개최한다. 연중 글쓰기·동영상 교육도 실시해 리포터들의 취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산=주형탁기자

광산구립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광주 광산구가 오는 25일까지 광산구립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현재 2년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창단에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광산구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추가 구비서류와 함께 광산구 문화예술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창단원은 오는 29일 면접과 실기심사로 선발되고 매주 2회 정기 연습을 거쳐 광산구를 알리는 대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합창단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258)에서 한다. /광산=주형탁기자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타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2억(평당 75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